

다니엘의 책 - 제194번

마카비의 메아리: 트럼프의 승리와 짐승의 형상으로 가는 예언적 길

Jeff Pippenger

2024-04-24

마카비가 대표하는 세력(미국의 배교한 개신교를 가리키는)은 기원전 167년 모딘에서 그리스 종교에 맞선 반란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마카비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종교를 강요하려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도를 꺾었고, 안티오쿠스와 협력하던 유대인 지도자도 죽였다. 따라서 2024년 선거에서 바이든은 '종교적 우파'로 알려진 투표 집단에 의해 패배한다. 역사는 2024년 선거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한다. 배교한 개신교가 RINO라고 불리는 글로벌리스트 공화당원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적 민주당이 나라에 각성주의라는 종교를 강요하려는 시도까지도 제압한다.

마카베오 가문으로 대표되는 내적 영적 전쟁은, 부유한 대통령이 글로벌리즘의 용의 권세를 불러일으켰던 2015년에 시작되었고, 두 증인을 살해하는 용의 일에는 2021년 1월 6일과 관련된 펠로시 재판이 포함되었다. 모데인과 마카베오의 반란은 2024년 11월 5일 배교한 개신교의 미래 승리를 가리킨다. 2025년 1월 20일의 취임식은 제2성전의 재봉헌을 나타낸 기원전 164년에 의해 예표되었고, 바로 그해(기원전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 안티오쿠스는 민주당과, 스스로를 공화당원이라고 규정하지만 소녀가 소년인 것과 마찬가지로 MAGA 공화당원은 아닌 그들의 글로벌리스트 파트너들을 대표한다.

파니움 전투로 마무리되는, 13절부터 15절에 의해 표상된 정치적 투쟁은 그 역사 속에서 각성주의와 배도한 개신교 사이의 종교적 투쟁과 병행한다. 2025년 트럼프의 취임은 기원전 164년 제2 성전의 재봉헌으로 표상되며, 그 후 그는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의 로마와 마카베오 동맹으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배도한 개신교회를 자신의 배도한 공화당 정부와 결합시켜 짐승의 우상의 실제적 형성을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는 교회와 국가를 결합하여 종교적 요소가 통제권을 쥐는 동맹을 만들 것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톨릭의 짐승의 우상을 형성하는 예언적 역사 속에서, 배도한 공화당의 별과 배도한 개신교의 별은 영생의 문제에서 잘못된 편에 서서 그들의 유예 기간의 잔을 채우게 될 것이다.

기원전 164년의 제2성전 정결로 표상된 취임은 기점으로,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 유대인과 로마의 동맹으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짐승의 우상을 형성하는 일이 시작된다. 트럼프는 2024년 11월 5일(기원전 167년)에 재선될 것이며, 그의 취임(기원전 164년) 때 그는 1989년의 끝의 때 이후 여덟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덟째, 즉 일곱에 속한 자가 될 것이며, 이는 주일법 때 그 짐승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성경 예언의 여덟째 왕국이 되는 교황권의 짐승을 반영한다. 그의 취임은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가 제2성전을 재봉헌한 사건으로 표상되었다. 마카비의 봉기는 그보다 3년 앞서 '항의'를 뜻하는 모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2024년 11월 5일 그의 선거 승리를 가리킨다.

기원전 164년에 제2성전의 두 번째 봉헌식이 있었는데, 이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을 상징한다. 그때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 앞선 일곱 명에 이어 여덟 번째 대통령이 된다. 유대교에서는 제2성전의 두 번째 봉헌식을 기념하기 위해 기원전 164년을 기린다.

취임식은 트럼프가 여덟째, 곧 일곱에 속한 자가 되는 때이며, 그때부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을 뒷받침하는 사탄적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덟은 부활한 짐승의 우상을 상징하며, 그 시점에 우상의 형성이 시작되는데, 이는 기원전 161년으로 상징된다.

짐승의 우상의 형성은 먼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후 그 우상은 온 세계에 강요된다. 미국이 세계에 짐승의 우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시작할 때, 그 우상은 말도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때 미국은 막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고 삼중 연합을 형성했을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에는 삼중 연합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도래한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기적들을 행하여, 온 세상이 세계적인 짐승의 우상과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그 시점에 트럼프가 열 왕의 지도자가 된다.

따라서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때의 삼중 연합에서 이루어질, 열 왕의 수장으로서의 트럼프의 취임은 2025년 1월 20일에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취임한 것으로 예표되었다.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의 형성이 완성되는 그 일요일 법령 때에는 교황권의 짐승도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된다. 그러므로 짐승의 형상에 대한 시험의 때는 트럼프가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됨으로써 시작되며, 그 기간이 끝날 때 교황권 또한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된다. 이는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으로써 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사탄의 이적들은 트럼프의 취임식에서 시작되며, 그때 짐승의 형상의 형성 기간도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의 형성 기간이 끝날 때 시작되는 사탄의 놀라운 역사의 표징이 된다. 트럼프의 취임은 그 기간의 시작을 표징하고, 유엔의 열 왕 중 수석 왕으로서의 그의 취임은 그 기간의 끝을 표징한다. 둘 다 짐승의 형상의 형성을 개시하는 시작과 끝의 두 취임은 먼저 미국에서, 그리고 이어 온 세계에서 일어난다.

동맹의 형성, 곧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 사이에 일어난 로마와의 연합이 이 역사를 특정해 주며, 그것은 16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결말을 맺는다. 교황 제도의 형상을 한 정부를 수립하는 최종 작업은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작되며, 자신의 정치적 승리에 배도한 개신교도들이 제공한 정치적 호의를 되갚으면서 트럼프에 의해 추진된다.

이 예언적 구조는 40절의 숨은 역사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숨은 역사도 그 구조에 배치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적 역사 또한 그 구조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40절의 숨은 역사 속에서 함께 결합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사자는 마지막 때까지 봉해져 있던 다니엘서 예언의 일부를 열고 있다.

성읍에서 나팔이 불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성읍에 재앙이 임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가운데 있는 큰 소동과 그 가운데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라 하라. 아모스 3:6-9.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 제시된 봉인이 풀린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며, 아모스는 성읍에서 나팔이 불리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울부짖지 않겠느냐 하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밝힘으로써 그 답을 제공한다. 그는 또한 경건한 두려움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그 나팔의 기별이 성읍의 악을 드러내며, 아스돗과 애굽과 사마리아에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는데, 이는 현대 바빌론의 삼중적 구성을 대표한다. 인치는 나팔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 표상하는 사건들에 앞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했다. 곧 인치는 기별인 그 나팔의 기별은 'Truth'의 서명을 지니는데, 이는 인치는 때가 셋째 화의 나팔이 세 차례 울려 퍼지는 것 위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팔의 첫 소리는 2001년 9월 11일에 인침의 시작을 표시했으며, 마지막 소리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인침의 끝을 나타내는데, 그때 큰 지진과 함께 셋째 화가 갑자기 임한다. 가운데 나팔 소리는 2023년 10월 7일에 있었는데, 고대의 영화로운 땅이 셋째 화의 이슬람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였다. 이는 2001년에 현대의 영화로운 땅이 셋째 화의 이슬람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것과 같으며, 또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그 세 번의 나팔 소리 중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고대의 영화로운 땅에 대한 그 가운데 기습 공격은 문자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반역의 상징이다.

아모스의 나팔 메시지는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었고, 그 메시지를 출판하는 일은 2023년 7월 말에 시작되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포효했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144,000명의 인치는 때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지구 전역에서 봉인이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만큼 누가 그렇게 대담할 수 있겠는가? 이 기사들은 현재 120개가 넘는 국가에서, 60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되며 읽거나 들을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

기도와 향과 섞인 불이 제단에서 나와, 일곱째이자 마지막 인이 제거될 때 땅에 던져지자,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와 큰 지진이 있었다. 이 큰 지진은 에스겔 9장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불처럼 쏟아지는 결과로 일어나는데, 오순절에 불이 임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 불은 이 글들처럼, 그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되었음을 상징했다. 그 불은 또한 이 글들처럼, 그 기별을 수많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했다. 이 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밝히고 있다. 주께서는 먼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활동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 같고, 풀 위에 쏟아지는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리라.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다.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불의가 없으시니, 공의롭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패시켰으니, 그들의 허물은 그의 자녀들의 허물이 아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이다. 신명기 32:1-5.

늦은 비의 '교리'는 지금 주님에 의해 선포되고 있으며, 한밤중의 외침-늦은 비 메시지를 구성하는 교리들은 '주님의 이름'에 기초해 있다. 그의 이름은 '진리'이시며, 그는 팔모니, 곧 놀라운 계산자이시고, 그는 놀라운 언어학자이시며,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이시며, 그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그는 대천사 미가엘이시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이름은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또한 2023년 7월 말부터 전 세계에 게재되어 온 기사들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이기시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의 봉인을 떼실 권리를 얻으신 분께서 이제 1844년 10월 22일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울고 계시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또 사자가 부르짖는 것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친 후에 일곱 우레가 그들의 음성을 발하더라. 그 일곱 우레가 그들의 음성을 발한 후에 내가 기록하려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내게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3, 4.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와 일치하는 거룩한 역사는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이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와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 하박국 2장, 그리고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의 성취이다. 그들의 역사는 1798년 끝의 때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1989년의 끝의 때와 상응한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 우레가 그들의 음성을 발하였으나, 요한은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초기부터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특별한 기회를 받았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고', '낙원에 이르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주께로부터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의 복음 진리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가장 뛰어난 사도들'에 못지않았다. 고린도후서 12:2, 4, 1, 11. 그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분명하고도 충만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에베소서 3:18, 19. 사도들의 행적, 469.

모든 선지자들은 말세를 가리킨다. "일곱 우레"가 그들의 소리를 '내었을' 때 요한이 들은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금지되었고,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있을 때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일곱 우레"가 나타내는 진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진리의 봉인을 떼기로 선택할 때까지 봉해져 있어야 했다.

그것은 Sister White에게 부분적으로 봉함이 풀렸다. 이는 그녀가 그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나타내며, 또한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미래의 사건들"을 나타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때 드러난 것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된 예언이었다. 또한 그녀는 "일곱 우레"의 봉함이 다니엘서의 봉함으로 예표되었다는 지시를 받았다.

일곱 천둥으로 표현된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개요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

"이 일곱 천둥이 그 소리를 발한 후에, 작은 책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명령이 요한에게 이르렀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하라.' 이것들은 장차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되며, 그것들이 차례대로 밝혀질 것이다."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volume 7, 971.

"일곱 우레"를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이 늦은 비의 메시지임을 증명하고 뒷받침하는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은 1989년에 시작된 종말의 때에 인정되었지만, 2001년 9월 11일 이후에는 두 운동의 반복이 갖는 중요성이 현재적 시험의 진리가 되었다.

그날에 입증된 기본 원칙은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밀러주의자들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밀러주의자들의 기본 원칙이 1840년 8월 11일에 입증된 것과 같다. 밀러주의자들에게는 하루가 1년을 대표한다는 기본 원칙이 1840년 8월 11일에 입증되었고, 모든 개혁 운동들이 서로를 예표한다는 "line upon line"의 기본 원칙은 2001년 9월 11일에 입증되었다. 그 진리의 증인으로서 "일곱 천둥"은 그때 봉인이 풀렸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신다. 그리고 인침 과정의 시작이었던 2001년 9월 11일은 인침 과정의 끝을 가리킨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는 2023년 7월에 죽어 마른 뼈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을 때 '일곱 우레'의 또 다른 측면의 봉인을 떼셨다. 이는 그분께서 그때 '진리'에 따라, '일곱 우레'가 또한 상징적으로 첫째와 마지막 실망의 밀러파 역사를 나타내며, 그 중간 이정표는 한밤중 외침에 대한 반역임을 밝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일곱 우레"가 2020년 7월 18일의 역사에서부터 곧 임할 주일법에 이르기까지 반복된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첫 번째 이정표인 2020년 7월 18일의 실망과, 인치는 때의 끝에 "일곱 우레"를 식별하는 "진리"의 세 이정표 중 마지막인 곧 임할 주일법의 실망은, 지금 포효하시며 자신의 기별의 봉인을 떼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기별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관련된 반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 기별이 말세의 "한밤중 외침" 기별이기 때문이다.

인침의 때가 시작되던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하여 여러 가지 가운데 특히 "일곱 우레"의 의미에 관해 봉인되어 있던 보다 온전한 이해를 풀어 주었다. 그때 "일곱 우레"에 관해 이해된 바는, 개혁 운동들이 서로 병행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개혁 운동의 그 이정표에서 그 천사가 강림할 때마다 각 해당 역사에서의 주요한 예언의 규칙이 입증된다는 것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은, 시작(또는 알파) 운동이 끝(또는 오메가) 운동을 예증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줄 위에 줄'이라는 늦은 비의 방법론을 입증했다. 인치는 시기의 끝에,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소돔과 애굽이라 일컬어지는 그 큰 성의 거리에서 죽어 있던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죽은 마른 뼈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미가엘이 강림하셨다. 미가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생명으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일곱 우레'에 관하여 이전에 계시되었던 진리들을 넘어서는 숨겨진 역사가 있음을 봉인을 떼어 드러내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진리의 봉인을 떼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진리'라는 구조 속에 두셨다. 그때 2020년 7월 18일이 1844년 4월 19일에 대응한다는 것과, 그런 이정표들 각각 뒤에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봉인 해제되어 각각의 역사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반역을 드러내게 되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그분은 그 기별이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의 큰 실망이 임하기까지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사실도 봉인을 떼어 드러내셨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10-13.